

# 우리는 종인입니다

시편16:8-11, 사도행전4:12-22

최정웅 원로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할렘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탈리아, 기독교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집회를 참여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처음 집회를 했는데도 450명 정도 모여서 훌륭한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고 많은 현지인들과 유럽의 모든 전도자들이 모였으며,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셨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복음이 유대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전 세계의 복음 중심지가 되었다. 로마에서 북쪽으로 1시간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밀라노는 평평한 동네였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는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기독교 자유령이 떨어졌다. 특별히 유대인과 로마가 달려들어서 기독교를 핍박했다. 그러는 가운데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당시 교황이었던 라키니우스라는 교황이 기독교 자유령을 선포하게 된다. 예수 믿어도 괜찮고 교회 다녀도 괜찮다고 최초로 승인이 된 것이다. 예수를 말하면 죽인다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때 자유령이 처음으로 밀라노 칙령이 내려진다. 최초의 기독교 자유령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재산을 다 몰수했었는데 그 재산을 반환해 주고 속박법률까지 폐지했다. 그 때가 주후 313년이다. 그래서 그 곳은 기독교인들에게 해방의 장소였다. 지금도 두 교회가 남아있는데 한 곳은 '성 밀란'이라는 엠브로오스라는 성당이 있는데, 엠브로시우스 감독이 시무했던 곳이다. 이 감독은 신앙 있는 사람이었다. 이 분을 빼버리면 기독교 초기사가 흔들릴 정도의 사람이 있다. 바로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지만 어거스티누스가 살았던 곳이며, 그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가 엠브로오스 감독이 시무했던 교회였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예화였을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가보니까 한 여인이 울고 있는 것이다. 그 여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집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답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 여인이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다. 그 기도로 아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중요한 교부가 되었다. 이 분의 참회록은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이다. 철저하게 회개했고 참 믿음으로 살며 은총론을 주장했던 교부였다. 가이도가 따로 있지 않아서 자유롭지 못해서 딱 한 군데를 둘러봤는데 정말로 오로지 그랬다. 대리석으로 지은 예배당인데 500년 동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는 지은 지 10년 되었지만 험담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곳이 성모 마리아의 탄생을 기념하는 곳이었다. 제일 꼭대기에는 마리아 상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았다. 그 예배당이 108m에서 그 동네 건물은 108m보다 높게 못 짓는다. 법은 아는데 규례가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딱 한 건물만 그 높이보다 높은 건물이 있는데 그 예배당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할 일이 있었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점은 마리아를 찬양하는 예배당이라 '마리아 기념교회'라고 써져있다. 그것을 지금도 짓고 있을 정도이다. 조각도 있는데 약 4천 개가 있다. 참담을 둘러싸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예배당 오른쪽 첨탑에는 지평선을 들고 있는 상이 있다. 누구나 그 물어보니까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지 분이 부자여서 전 재산을 바쳤다고 한다. 그 재산 가지고도 완성하지 못한 거대한 성당이다. 가볼만한 곳이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지금은 하얀 대리석이지만 나중에는 까맣게 되는 옥 대리석이다. 매우 비싼 대리석이다. 지금도 그 옥산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고 그 교회를 수리하려면 그 옥산에서 옥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수리한다. 우리는 예배당 지었는데 원니스도 힘들다. 그런데 그 사람은 500년을 걸치면서 원니스를 이루고 있다. 오늘의 제목은 종인이라고 정했다. 무엇에 대한 종인인가?

우리 인류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받았는데, 특별히 26절에서 28절까지는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다.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명하게 구분한 것이다. 이것이 최초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 행위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시기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장 1절-6절에서 이 명령을 거역한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다. 사단이 뱀으로 둔갑을 해서 조금 약한 자인 하와를 쫓은 것이다. 그 여인을 유혹을 해서 결국에는 마유이 무너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그 말은 하나님을 거역,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것이 불행이다. 그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6장 23절에는 죽음이 오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되고 슬픔이 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 때 끝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400년간 종노릇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단이 완전히 주인 된 것이다. 방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다. 복음이 유럽에서 시작되었는데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 마케도나 쪽으로 오라고 마케도나 사람이 손짓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마케도나로 갔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였다. 나중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만 사실은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땅에서 죽는다. 태어난 후대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도 사사기 내용에 보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다. 애굽에서 노예생활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 기독교가 2천 년이 지났는데 밀라노라는 동네가 우상동네가 되어버렸다. 지금도 마귀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말로는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마리아는 사람이다. 그에게로부터 태어난 예수님은 참사랑이라 하지만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남자 없이 태어난 신이다. 마태복음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하고 있다. 그런 복음의 비밀을 가진 신 분인데 그것을 다 놓쳐버린다. 그래서 마리아를 섬긴다. 지금 예배당이 다 없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관광명소로서 우상동네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왜 그런지 정지자, 지도자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다. 알지 못한다. 유럽은 복음이 들어왔지만 한 번도 복음 운동한 적이 없다. 313년에 국교로 황제가 선포되었다. 자유령 뿐만 아니라 국교가 되었다. 기독교로 행복해졌는가. 집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땅도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주의 종들도 많아졌지만 결국에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주후 500년부터 주후 1500년 까지 종교개혁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말한다. 기독교 조각, 건축물이 앞세워지기는 했지만 아들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때였다. 이

세상 역사가들이 말한 것이다. 동남아, 남미에 한 번 가봐라. 미얀마, 티베트, 인도 이런 나라에 가보면 절들을 광장하게 지어놓았다. 똑같다. 그것을 우상 섬기듯 섬기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영적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예, 포로, 속국 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겉으로는 자유국가가 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회한한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사는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전히 우상동네가 되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이다. 어딜가나 마찬가지이다.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안 보이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가?' 했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복음은 없어져버리고 전부 하나님 없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수를 섬기는 나라, 문화가 되었다. 그래서 원수는 지금도 문화를 타고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세 말하는 3단계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제는 온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관광을 가더라도 볼 때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고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현지인들이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다가 '맞네' 한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금빛이 폭발할까봐 천으로 덮여있었다고 한다. 바블론도 세 곳이 있는데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이 있고 프랑스에는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영박물관이 있다. 이것이 3대 박물관이다. 들어가면서 나올 때까지 전부 우상이다. 참으로 회한한 일이다. 뱀 때문에 인류가 망했는데 뱀 형상까지 만들어 놔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다. 출애굽 했을 때 소수의 사람인 모세와 요셉이 있다. 모세는 80세가 넘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언약을 붙잡게 되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 내용을 알았다. 언약을 분명히 알았다. 복음을 알았던 그들 중 모세는 전 재산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도 복음은 떠나지 않았다. 200만 명을 살렸고 그들을 끌고 가나안 앞까지 가지 않았는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게 되면, 그냥 '나 알겠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그래서 요셉은 종살이를 해도 괜찮았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류를 살리지 않았는가. 모세도 마찬가지이다. 바벨론은 완전히 영적으로 망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와 같은 소수의 사람이 등장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면 한 사람만 나와도 된다. 이번에 김준일 집사님 내외와 배고는 집사가 참석했고, 영국에 있는 정혜찬 램프가 와서 같이 은혜를 받았다. 몇 사람이 있어도 되는 것이다. 로마도 마찬가지이고 초대교회의 환경을 보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분들이 마가다라방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살리지 않았는가. 대표적으로 바울 때문에 전 세계가 살지 않았는가. 포로 되고 노예, 속국 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이었다. 언약을 제대로 알고 누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누렸던 사람들은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구원의 주역이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얘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났다.

본론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종인이 될 수 있는가. 아무나 종인이 될 수 없다. 종인이 되려면 자신이 직접 봐야 하거나 들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종인석에 서게 된다. 본 인정이 된다. 그런데 제 3차로 전해들은 것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1.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 언약을 확실히 하는 사람, 복음을 확실히 알고 체험한 사람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종인이 될 수 있다. 자기의 체험이 없으면서, 보지도 못했으면서 해보지도 않았으면 종인이 될 수 없다. 참사랑 가족들은 그런 의미에서 종인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맞다.'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종인인 줄을 믿는다. 세상 말 그만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꼭 붙잡고, 언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환경에서 저들을 견제내면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캠프, 일본에 가는 것이다. 가서 보면 현장이 열리면서 그 사실이 확인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내 것이 될 수 있는 날, 그 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승리하시길 바란다. 완전히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면 정체성이 분명해야한다.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어야 한다. 구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다 본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까지 했는데 왜 안 되었는가. 내 것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참사랑교회 중직자들 중에 '이만큼 들었으니 되었다.'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것이다. 정말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라방이 생나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받는 것이다. 구약 사사기에 자세히 나와 있다.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밥 먹을 만하면 다시 놓친다. 우리나라도 GDP가 3만 불을 겨우 넘어섰는데 다시 내려가고 있다. 금방 그렇게 된다.

(1) 사랑하는 참사랑가족 여러분,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약이 확실하게 되기를 바란다. 복음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복음을 가지고 누려본 사람만이,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원수를 이길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2) 바벨론에 가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이들을 해낼 수 있었다.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고 사자가 그들을 물어 죽이지 못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했다. 생명을 바쳤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런 예화를 들어봤을 것이다. 여행을 갔는데 지진이 일어난 것이나, 남편이 야박을 대리고 같이 도망가야 했는데 자기 혼자 도망간 것이다. 나중에 만났을 때 얼마나 말했겠는가. 인간이 그렇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생명을 구하게 여기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는가.

(3) 초대교회도 말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다.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킬 수 있었다. 오늘 RUTC 방송에 종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한다. 복음운동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같이 따라라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산업현장에서 부르짖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진자 체험해보아야 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말을 체험해야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고 체험이고 능력이다. 참사랑가족 여러분들이 정체성에 있어서 분명하기를 바란다. 여기에 올인하면 된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다. 질문해봐라. '나는 언약의 사람인가. 복음의 사람인가. 주여 지금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정

말도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 참사랑 가족분들이 이것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2. 그렇다면 우리가 중인이 되려면 시명을 알아하지 않나.** 우리에게 어떤 시명이 있는가. 원수에게 다 빼앗긴 것을 회복할 시명이 있다. 바깥 사람들이 무엇을 하던지 그것이 그들의 삶이고 목표니까 닦할 것이 없다.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회복된 삶이라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나라의 형편을 보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았는가.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이다. 숫자가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하다. 참 믿음 가진 한 사람,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한 사람. 그 언약을 실현할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1) 우리의 시명은 다른 것이 아니다. 복음운동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른 것을 회복할 것이 아니다. 교회도 복음운동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하는 단체인데, 다락방을 해본 적이 없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이다. 전할 전(傳)에 이치 도(道)이다. 내 안에 도를 말하는 것이다. 진짜 있다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묻는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절대 제자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절대 현장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다. 참사랑 모든 가족들이 복음운동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결혼하는 분들도 복음운동을 위해서 결혼하고 사업하는 분들도 복음운동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에 가도 복음운동을 위해서 가라. 하나님이 바주실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목표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도 요셉, 바울, 다니엘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신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운동해야 한다. 가정에도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가정예배가 되어지는가. 복음편지를 하나 물어보기 전에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확인하게 되면 그것은 되어지는 것이다. 복음운동해야 한다. 구라파가 가나나 복음 운동을 하지 않고 구교, 신교를 말한다. 정치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배당까지 우상당내가 되었으니 더 말할 것이 없다.

(2) 말씀 운동해야 한다. 그래서 강단말씀을 붙잡고 3주, 기도수첩,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두 집사님 가정이 한 분은 연구원, 한분은 예술 활동을 하는 분이 아닌가. 정말 바쁜 분들이다. 그런데 이번엔 훈련을 다 받았다. 학습을 다 받고 집중훈련을 간다고 한다. 문자가 왔다. ‘저는 지금 스위스입니다. 집중훈련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놀라게도 그 삶에 영적인 체계를 하게 되고 복음운동을 하게 된다. 덴마크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나라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더라. 우리에게 말씀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내가 왜 안 될까. 왜 응답이 안 올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울인하게 되면 복음운동에 올 이웃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개입할 때만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이 진짜 기적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말씀운동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제일 먼저 다른 사람과 하기 전에 나 혼자 홀로다락방을 해봐라.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 보라.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3) 전도운동을 해야 한다. 교회는 전도운동 하는 곳이다. 다른 것을 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운동하는 곳이 교회이다. 그 동안 교리싸움하지 않았는가. 구라파는 삼위일체를 가지고 2천 년을 싸웠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면서 거기서 모든 신학이 나왔다.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 세계가 동시에 망하고 있다. 전도운동하지 않고 그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과 바벨론, 로마에 사로잡혀있던 사람들이 탈출하려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복음,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누리면서 말하는 것이 전도일 때 그것이 되어지면 환경이 변한다. 이것을 우리 참사랑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3. 이것을 누릴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사키지 않으셨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 하나님이 주신 신분으로 해야 한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았는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시어셔 43장 1절의 말씀처럼 ‘나는 네 것이다. 너는 약속의 자녀이다.’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가. 성령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 약속만 딱 붙잡고 믿으면서 한 시간 동안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불러봐라.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불러봐라. 다른 문제 해결된다.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보인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말씀대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바란다.

(2)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해라.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가. 믿는 자에게 신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식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왜 맨날 당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모자라다고 생각한다. 고린도전서 2장을 다시 읽어보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누구에게 배울 것이 없을 정도가 된다. 그래서 사도 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 된다. 노력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드러낸다.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능력이 내 배정에 된다. 구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권세를 우리가 받을 때 새 힘이 생긴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기를 바란다. 절대 내 힘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하다. 그 권세로 가능하다.

(3) 권세와 함께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이야기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할 때 되어진다. 내 것이 아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러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했다. 자신의 힘으로 할 때에는 결국 실패하고 안 되었다. 그것은 지식의 문제, 부의 문제, 능력의 문제도 아니다. 나이 문제도 아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지하는가,

주의 이름을 진실한 마음으로 불렀느냐. 그것에 달려있다. 이 정체성이 제대로 되는 것을 보고 울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시명을 위해서 중직자들이 울아웃을 하게 되면 사망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시명을 위해 살고 죽으리라.’ 이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생긴다.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신분으로 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선포해 보라. ‘내가 하나님이 자녀인데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인정해 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끝이다. 진짜로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 날부터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절대 현장도 보이고 영접되길 작정된 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요즘 간증이 나오는데 다 그렇다. 그 분들이 훈련 받은 사람들이다. 안 되니까 집중에 들어갔다. 집중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일어난다. 현장에 역사가 일어난다. 직장과 현장에서 일어난다. 참사랑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결론이다. 이 일을 하려면 결국에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 힘은 내 힘이 아니다. 힘 없다. 나는 약하다. 가난하다는 소리 하지 말라. 한 노인이 비가 새는 시골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주의 종을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지구표 메리야스 사장님이 강로님이 계셨는데 여름휴가를 부인과 같이 가는데 자그마한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어 쉬어가고 내렸다. 들어갔는데 깔깔해서 안 보이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마루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비가 씩니다. 예배당을 다시 주세요. 주의 종을 보내주세요 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를 장로님 부부가 들은 것이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하니가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여행을 포기하고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집사님.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장로인데 지나가다가 마음이 끌려서 왔는데 집사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날로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기도했다. 무슨 힘이 있겠는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할머니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회개가 이뤄지도록 하고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의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지었다. 그 분이 새벽기도 때 말하셨다고 한다. 오늘 계약을 해야 하는데 50억이 필요하다고 기도해 달라고 했다. 어느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다고 한다. “저는 사랑의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기도회 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광고 들어보니까 계약을 해야 하는데 얼마 모자라다고 들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가져왔습니다.” 봉투를 가져왔다. 열어보니까 50억짜리 수표였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 하는 일은 다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역사가 되지 말만 해서 안 된다. 여러분의 소원이 현당하는데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기도해 보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교회가 50년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나고 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말씀운동, 복음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필요도 하지도 하면 벌떡 일어나서 해라. 돈이 없으면 기도해라. 그 때부터 응답받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도 그렇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기를 축복한다.

1. 그러려면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마련해야 한다. 복음의 틀을 만들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되면 참사랑이 함께 하신다. with이다. immanuel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다. 참사랑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요셉,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되면 oneness의 축복이 일어난다. 절대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번엔 237 센터는 마련하려고 한다. 몇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서 십 몇 억이 나왔다. 한 장로님이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10억을 현금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어난다. 미국에서도 RU를 위해서 땅을 샀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 찬송을 크게 하지 말라고 한다. 신학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이번에 가나가 포기하고 땅을 내놓으려고 한다. 그 땅을 팔아서 시대에 내놓은 교회를 사려고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누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누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가. 믿는 사람, 복음 사신 사람이 가능하다.

2. 그러려면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 어떻게 하면 힘을 기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면 된다. 시편 103편 20-22절에 보면 천군과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우리 좌우에는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우리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요한계시록 8장 3-5절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서 바로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심부름꾼이 여러분에게 있다. 오늘 방송에 나왔다. 류목 사님이 공청회를 하는데 “왜 당신들은 천사이야기를 많이 하냐. 천사가 왜 종이 되냐.” 묻는다. “그러면 천사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못한다. 사상은 참사랑교회 여러분 하늘의 도움을 받아라. 안된다고 하시 마시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우하시는 나라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을 믿는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관리하시면, 그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나라엔 망하지 못한다. 정말 믿음 가진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

3.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에 역사가 일어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 말씀하셨다. 정말 복음, 언약기전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면 이런 시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믿어도 타락할 수 있고 멸망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내가 장로교간판 떼라고 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 분들은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발파등을 차다가 종교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남은 자의 대열, 구원 받은 자의 대열에 선 것 자체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말을 계속 고백해 보라. 되도록 안 되는 일 가지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해 보라. 그것을 가지고 하룻밤을 못 지낸다. 계속 애만 쓴다. 하루만 불러보라. 3일 금식을 해 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중인이 될 수 있다. 중인의 정체성, 중인의 사명, 중인의 방법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말을 적게 했거나 많이 했거나 우리 참사랑가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의 기본을, 중심을 바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지만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습니다. 아멘”